

## 5. 두 종류의 제자: 유랑제자와 정착제자

※ 오늘의 포인트

1. 제자란 누구인가?
2. 두 종류의 제자도
3. 제자도의 성격
4. 제자도의 모델 케이스

### 1. 제자란 누구인가?

제4강에서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최초 어부제자들을 주께서 부르시는 사건을 통하여, 제자로 부름 받은 이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제5강에서는 누가복음에서만 발견되는 두 종류의 제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내가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은 “과연 제자 곧 평신도란 등식(等式)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음서에서 제자란 예수님께서 부르시어 선택한 열두 명의 추종자, 즉 사도(使徒)로 알고 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어떤 평신도는, “제자가 주님께서 택하신 열두 명의 사도들이라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들을 어찌하여 평신도인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 문제와 함께 “역사적 제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 오로지 그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면, 그 말씀이 모든 인류를 위한 성경에 구태여 기록될 필요가 있었을까? 기록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 역시 마땅히 답변되어야 할 줄로 생각된다.

이러한 일련의 질문의 배후에는 「제자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함축되어 있다. 과연 사도(使徒), 즉 역사적 제자들만이 제자이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제자라 불릴 수 없는가?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라는 역사적인 열두 제자들 이외에도 성경에는 ‘사도’라 불린 자들이 있었고,<sup>1)</sup> ‘제자’라고 불린 자들도 있었다.<sup>2)</sup> 이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선택

1) 예를 들면, 바울, 맛디아(행 1.26), 바나바(행 14.4, 14), 주님의 형제 야고보(갈 1.19; 2.9),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롬 16.7), 실라(살전 2.6), 심지어 바울의 적대자들/거짓 사도(고후 11.13)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사도로 소개되고 있고(히3.1), 하나님에 의해 파송을 받은 선지자들도 사도로 불리고 있으며(눅 11.49), 교회의 파송을 받은 자들 역시 사도로 명명되어 있다(고후 8.23; 빌 2.25).

참고적으로 사도(아포스톨로스; avpo, stoloj)는 헬라어 아포스텔로(avposte, llw), 즉 ‘(사명을 주어) 보낸다’는 동사에서 온 단어로, 그냥 ‘보낸다’는 뜻을 가진 켈포(pe, mpw)와는 구별된다(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이 두 단어는 차별 없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NBD, "Apostle", [Leicester: IVP, 1982], 59-60).

2)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마 27.57; 원문에서는 “예수님께 제자가 된”(olj kai. avto.j evmaqteu.qh tw/| v|hsou)이란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과 제자의 허다한 무리(눅 6.17; 19.37)를 들 수 있겠다.

참고적으로, 제자란 구약에서는 드물게 등장하고 있지만(사 8.16; 50.4; 54.13), 그러나 랍비 문헌에서의 탈

하여 세우신 열두 제자의 그룹에는 속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제자와 사도로 불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 2. 두 종류의 제자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불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고 따랐던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유랑제자」를 우리는 거론할 수 있겠다(the itinerant disciples).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전도여행에 친히 동참한 인물들로서(막 1.16-20), 사명(使命)의 완수를 위하여 가정과 재산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스승 예수님과 마찬가지로(막 3.21, 31-35; 눅 9.58),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가진 바 모든 재산과 가정 그리고 직업을 포기하고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뒤쫓은 사람들이다. 이처럼 선생을 따르기 위하여 가진 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런 태도는 예수님 당대의 랍비 사회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것으로서, 보통의 「선생-제자」 관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결국 이들 유랑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택한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다.<sup>3)</sup> 한편 이 유랑제자들은 곧 열두 사도(使徒)들로서 사실상 역사적으로 반복될 수 없는 제자들이다.<sup>4)</sup>

둘째로, 우리는 「정착제자」를 거론할 수 있겠다(the sedentary disciples).

이들은 유랑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되, 사도들처럼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아니하였고 또한 그들처럼 모든 재산과 가정 그리고 직업을 포기하지는 않은 채, 자기의 속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제 그러면 복음서 내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인물을 살펴보자.

먼저, 갈릴리 여인들을 언급할 수 있겠다(눅 8.1-3; 23.49).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막달라 마리아 등의 갈릴리 여인들은 다른 남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전도여행에 동참했고 그런 의미에서 “여자” 제자들이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

미드는 랍비에게서 학문의 전승을 배우는 제자로서 친숙한 표현이다(대상 25.8). 헬라세계의 철학자들 역시 제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신약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제자」(막 2.18), 「세례 요한의 제자」(막 2.18; 요 1.35)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세의 가르침이 랍비들의 교훈의 토대가 되는 까닭에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여겼다(요9.28). Cf. *NBD*, "Disciple", 285-286.

3) *NBD*, "Disciple", 285-6.

4) *NBD*, "Apostle", 61.

남자 제자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소유를 전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섬겼다. 8장 3절에서 사용된 “섬기더라”의 원어 *디에코논(dihko,noun)*이 미완료 과거 형태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지속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재물을 포기한 주님과 제자들 일행이 어떻게 전도여행을 계속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된다. 즉, 바로 이런 여인들의 지속적인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 그리고 물질적 도움이 주님의 전도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sup>5)</sup>

둘째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들 수 있겠다(눅 10.38-42).

이들 자매는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전도여행에 지친 그들을 위로하고 편히 쉬게끔 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 자매가 여전히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여 대접할 만큼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재산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별히 10장 39절에 의하면 마리아는 접대 준비에 분주한 마르다와는 달리 주님의 발아래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였다. ‘누구의 발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다’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의하면 그 사람의 제자임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마리아는 분명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여자” 제자였던 것이다.

셋째로, 예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들 수 있겠다(눅 19.1-10).

예수님께서 예리고를 지나가시기 전에 주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그리하여 여행에 지친 예수님을 접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삭개오는 여전히 자신의 집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장 8절에서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재산 전부를 포기하겠다고 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sup>6)</sup> 또한 삭개오는, 누가복음 5장의 레위와 달리, 자기 직업을 단념하겠다고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는 이후에도 여전히 세리로서의 직업을 유지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또한 주님의 교훈을 좇아(눅 11.41; 12.33) 자신의 재산의 상당

5)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의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전도여행에 함께 동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도 열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랑제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이 여인들이 눅 8.1-3 이후 계속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여인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눅 23.49이며, 그 사이에는 한 번도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이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전도여행을 돕기 위해 ‘잠시 동안’, 혹은 ‘일정기간 동안’ 예수님 일행과 동행하였으며, 주님의 사역 내내 동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들은 눅 8.1-3 이후 눅 23.49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등장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 가정을 돌보았을 것이다. 즉 그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가정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이고, 이것은 마가복음 7장 1절-13절에서 유대인들의 그릇된 관행인 고르반과 관련하여 주신 주님의 다른 교훈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f. 답전 5.8).

6) Brian E. Beck, *Christian Character in the Gospel of Luke* (London: Epworth, 1989), 50-51.

7) 사실 세리라는 직업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단지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세리들이 배당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밝혀주는 증거는 누가복음 3장 12-13절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회개한 세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문의하자,

부분을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쓰겠다고 고백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선언하신 삭개오는 분명 주님의 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킬 수 있겠다(마 27.57-61).

마태복음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죽음을 위해 무덤을 마련할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예수님의 시체를 싸기 위해 아리마대 요셉이 사용한 세마포가 값비싼 물건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요셉은 확실히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소유를 단지 처분하는 식으로 포기하기보다는 뜻 깊은 일, 즉 주님의 시신(屍身)을 매장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분명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건만, 『어찌하여 주님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은 정착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 이해와 복음서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질문이다. 그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예수님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분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와 가족과 직업을 포기하지 않은 「정착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이며 또한 그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은 결국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실상(實狀)을 인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정착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유효하지 않다는 말인가? 분명 그렇지 않다. 누가복음 14장 25절-35절의 말씀은 분명히 제자들을 포함하여 주님을 뒤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눅 14.25). 이 말씀, 즉 누가복음 14장 33절이 정착제자들에게도 유효한 것이라면, 자신의 소유를 전혀 포기하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서 과연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

주님이 주님 자신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포기하지 않은 정착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33절이 정착제자들에게도 무리 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재산을 포기하지 않은 이들에게 재산을 포기하라는 명령은 과연 어떻게 무리 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 결국 우리는 여기서 누가복음 14장 33절의 주님의 명령이 정착제자들과 유랑제자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요컨대 유랑제자들에게는 문자적으로(literally)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정착제자들에게는 상징적으로(metaphorically)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적용된 유랑제자들의 경우,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가진 바 모든 소유를 실제로 포기하였다(막 10.28). 반면에 이 말씀이 상징적으로 적용된 정착제자들의 경우, 그들은, 비록 실제적으로 가진 바 실제로 소유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형편 속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에서 주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바르게 살면서, 기회가 주어질 경우 기꺼이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즉, 정착제자들은, 비록 가진 바 모든 소유를 실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거지가 된(눅 9.58; 9.3; 10.4)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을 포함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들의 재물을 사용하였다(눅 19.8; 8.3; 10.38; 23.52-53). 한 마디로 정착제자들은 비록 실제로 재산을 그 수중(手中)에 소유하고 있기는 하되 사실상 그 재산의 소유권(所有權: ownership)은 포기한 것과 다름없이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은 무리(無理)나 억지 없이 해석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두 종류의 제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우리는 유랑제자는 사도와 동일시되면서 역사적으로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 인물임을 지적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모든 성도는, 비록 그 기능이 목사이건 신부이건 장로이건 집사이건 간에, 모두 정착제자들인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이 예수님 당대에도 직능상(職能上) 오늘날의 목사나 신부와 같은 유랑제자들에게와 오늘날의 평신도에 해당하는 정착제자들에게 무리 없이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유랑이건 정착이건 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것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동서고금(東西古今)의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앞서 이 글의 모두(冒頭)에서 제기된 질문, 즉 “제자가 주님께서 택하신 열두 명의 사도들이라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들을 어찌하여 평신도인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3. 제자도의 성격

이제까지 우리는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두 종류의 제자를 살펴 보면서,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같으며 또한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면 이제 유랑제자와 정착제자 모두를 포함하여 성격이 말씀하고 있는바 「제자란 과연 누구이며 또한 어떤 인물인지」를 복음서를 통하여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로, 제자란 배우는 사람이다.

헬라어에서 제자는 마데테스(maqth,j)라고 불리는데, 이 마데테스란 단어는 본래 만다노(manqa,nw) 즉 ‘배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의 명사형이다. 만다 노는 신약성경에서 25회 나타나는데, 공관복음 가운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도 없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13.28),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 사용되고 있다(마 9.13; 11.29; 24.32). 제자란 단어가 ‘배운다’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제자의 의미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배움 즉 교육은 지적인 요소(지식)를 가리킨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배워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입학은 있되 졸업은 없는 것이다. 모든 제자는, 교회 내에서의 그 기능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집사이건 간에, 일단 입학하면 마침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성경은 배워서 끝낼 수 있는 교과서가 아니다. 성경은 배우고 또 배워도 다함이 없는 무궁무진한 진리와 교훈으

로 가득 차 있다. 평생을 투자하여 배워도 다 깨달을 수 없는 생명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제자 된 성도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아니면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배우기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제자로서 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음을 뜻한다. 그 이유는, 성경 속에서만 우리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과 지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요리문답에 의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 밖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다.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사람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인데, 성경 밖에서 우리는 이런 지식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도, 또한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며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이런 까닭에 인생이 해야 할 일 중에서 성경을 배우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배움 즉 교육이 제자도의 한 특징임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다.

공관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제자란 단어의 동사형인 만다노가 비교적 자주 사용되고 있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함께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무지(無知)가 깨우쳐지며 주님 말씀의 이해(理解)에 도달하고 있다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마태복음에서 더욱 잘 묘사되어 있다(마 13.51; 16.12; 17.13).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육을 받으며 때로는 이해에 실패하기도 하지만(마 15.16; 16.9), 마침내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효과적 제자 교육을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다 여실히 밝혀 주는 또 다른 증거를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어 즉시 그들을 파송하시기 위하여 전도를 위한 권면의 설교를 하시고 있다. 마태복음의 파송설교는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할 때 상당히 긴데, 이 역시 교육을 중요시여기는 마태복음의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파송을 위한 설교만 있을 뿐 실제로 제자들이 파송되어 나갔다는 기록이 나타나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마11.1). 즉 제자들은 전도 파송을 위한 교육만 받았을 뿐 실제로 파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소개되고 있다. 파송되지 않았기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제자들이 나가 행한 기록도 없고(cf. 막 6.12-13; 눅 9.6), 또한 파송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전도사역에 대해 주님께 보고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cf. 막 6.30; 눅 9.10).

그러면 왜 제일 복음서 저자인 마태는 이런 변화 혹은 해석을 시도하였을까? 아마도 그것은 제자들에게 있어 사역에 나서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배움/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실제로 파송 받는 것은 마지막 장(章) 마지막 절(節), 즉 28장 19-20절에서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28장 19-20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파송 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파송되어서는 안 될, 그 때까지는 계속 배움으로 준비를 갖추어야 할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sup>8)</sup> 여기에 바로 마태복음의 제자도의 특징이 나타난다: 제자란 파송 받기 전까지 부단히 배워서 제대로 준비를 갖추어야 할 존재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배움으로 준비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의 주제를 넘어선 교만한 자들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주님의 사역에 적합치 못하므로 쓰임 받기에 적절치 못하게 될 것이다(cf. 딤후 2.20-21).

이처럼 제자들은 좋은 제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계속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주님의 지상명령(至上命令)을 따라 남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배워야 한다. 결국 좋은 제자가 좋은 선생이 되는 법이다.

둘째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자신을 따라 오라”고 명령하셨다(막 1.17; 2.14). 예수님 당대의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아무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을 곧 그 사람의 제자 됨을 뜻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런 용례를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보게 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가시며(proa,gwn),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뒤를 쫓아가고 있다(avkolouqou/ntej).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실천적 요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의 배움의 요소와 합하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제자도의 참 특징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면 실천적 요소로서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정(가족; 막 1.20)과 재산(막 1.18, 20)을 포함하여 모든 것(눅 5.11; 막 10.28)을 포기하였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도의 요건으로 누가복음 14장 25-35절에서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또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셨다. 이러한 것들의 포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포기하고 쫓은 후에 후회할 수도 있기에, 주님은 포기 앞에 세심한 숙고의 필요성이 있음을 비유로써(눅 14.28-32) 강조하고 있다. 즉흥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추종자들을 권면하실 때도 주님은 이런 유(類)의 말씀을 주신 바 있다(눅 9.57-62).

게르트 타이센은 예수님을 포함하여 이들 유랑제자들의 삶의 특징을 마가복음 10장 28절을 근거

8) 그런데 이 파송구절에서 사실 본 동사는 “제자 삼으라”(maqhteu,sate)이고, 나머지 동사들은 분사와 부정사로 되어있다(가서/poreuqe,ntej; 세례를 주고/bapti,zontej; 가르쳐 지키게 하라/dida,skontej ... threi/n).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제자 삼는 행위이고, 그 밖의 나머지 행위들은 이를 돕는 보조적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로 하여 사회적 무근성(無根性; rootlessness)이라고 명명(命名)하였다.<sup>9)</sup>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땅에서 뿌리 없는 삶을 살았다. 사실 이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등의 뿌리를 세월과 함께 깊게 더 깊게 내리려고 애쓰는 가련한 이들을 보게 된다. 나그네는 짐이 무거울 경우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땅의 것들을 자꾸만 버리는 연습을 익힘으로 이 땅에서의 여정(旅程)을 쉽고도 가볍게 경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참고, 골 3.1-3).

#### 4. 제자도의 모델 케이스: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눅 10.38-42)

이제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배움과 실천을 겸비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비록 가족과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셔야 하는 전도여행으로 피곤하여 지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였던 정착 제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해 놓은 후 두 자매가 보인 반응은 사뭇 다르다. 한글 개역에서 ‘언니’로 소개되고 있는 마르다는 여행객들을 초대해 놓고 열심히 접대 준비에 바쁜 반면에, 동생으로 소개되고 있는 마리아는 바쁜 언니를 도울 생각보다는 여행으로 지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기를 선호하였다. 그런데 이 두 자매 중에서 예수님은 접대 준비에 바쁜 마르다가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로 인하여 불평하자 오히려 말씀 듣기를 선택한 마리아를 옹호하시는 말씀을 하셨다(41-42절).

이런 이유로 하여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세속적인 일로 분주한 마르다보다는 말씀을 배우기를 선택한 마리아를 더 바람직한 성도 및 제자의 모습으로 생각하여왔다. 아울러 이로부터 생활보다는 말씀을 배우는 신앙 교육(여기에는 교회에서의 예배 및 교육이 포함된다)이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성도의 생활, 즉 윤리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폐단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사(記事)를 해석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요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이 기사가 놓여진 문맥에 대한 고려이다. 이 기사 바로 앞에 위치한 기사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이다. 이 비유의 마지막은 주님의 율법사에 대한 명령인데, 그것은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이다. 그리고 이 명령에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기사가 바로 ‘마르다/마리아 기사’인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복음서가 연대기적으로 기술된 역사서가 아니라면,<sup>10)</sup> 누가 이 두 기사를 한 문맥(文脈) 속에서 연이어 소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확실한 의도를 갖고 이 두 기사를 묶어서 기록하였던 것이다.<sup>11)</sup>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의

9) Gerd Theissen, 김명수역, 원시그리스도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pp. 134-171.

10) 이 말은 복음서 속에 역사가 전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분명 복음서 속에는 구주 되신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담겨져 있다.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일까, 아니면 마리아일까? 그것은 전도 여행으로 지친 예수님을 접대하고자 준비에 힘썼던 마르다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는 결코 꾸중만을 들었던 것이 아니고, 마리아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마리아와 똑같이 하나의 바람직한 모델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힘들고 지친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으로써, 믿음을 실천으로 옮겼던 훌륭한 제자의 모습인 것이다. 요컨대, 마르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복음서 기자 누가의 정해진 의도에 의해 결정된 문맥에 의하여 추천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실천한 모델인 것이다(참고, 갈 5.6).

한편 마리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기사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에 의해 말씀을 배우는 제자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추천되고 있다. 여기서 “주의 발아래 앉아”(pro.j tou.j po,daj tou/ kuri,ou)는 어구(語句)는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에 의해 사용된 표현, “가말리엘의 문하에서”(para. tou.j po,daj Gamalih.)와 유사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분명 주님의 문하에서 학습한 주님의 “제자”였던 것이다.<sup>12)</sup>

이 사실은 예수님 당대의 여자에 대한 인식 및 관습을 놓고 볼 때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즉, 1세기 즈음의 유대 지방에서 여자들은 일종의 노예로 간주되었고 종과 함께 남자(남편)의 재산의 일부분이었으므로<sup>13)</sup>, 랍비들의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랍비들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으며, 심지어는 여자들과의 대화조차도 회피하였다. 이런 당대의 관습을 감안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들만이 사는 집에 초대를 받아 그들의 대접을 받으며 또한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은 사실상 일종의 스캔들과도 같은 사건일 수 있었다.

여하튼 마리아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이제까지 마르다가 대변하고 있는 여성의 일상적 역할(가정의 일)을 뛰어넘어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남자와 대등한 위치에 이르게 되었음에 대한 하나의 좋은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마리아가 상징하는 바는 교육(배움)에는 성적(性的) 및 신분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cf. 갈 3.28; 고전 11.11-12). 그러나 마리아의 이런 역할로 인해 사랑을 실천에 옮긴 모델인 마르다의 역할이 결코 축소되거나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리아가 중요한 만큼 마르다 역시 중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기사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는 제자도의 모델로 추천되고 있다. 즉, 마리아는 배움(교육)의 제자도의 특징을 보여주며, 마르다는 실천의 제자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마르다/마리아 기사」에서 결국 제자란 지식과 실천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 ※ 적용점

1.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며 따르는 제자임을 기억하고 합시다. 제자란 먼저 배우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11) Cf. W. Grundmann, *Das Evangelium nach Lukas*(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74), p. 225; F. W. Danker, *Jesus and the New Age*(St. Louis: Clayton Publishing House, 1974), p. 133-134.

12) 누가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복음서 기자 중 유일하게 다비다를 가리키며 “여제자”(maqh,tria)를 사용하고 있다.

13) 십계명 중 제 십계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인데, 네 이웃의 집에 속한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네 이웃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출애굽기 20.17). 이로 보건대 아내, 즉 여자는 남편의 재산의 일부분이고, 결혼 전의 여자, 즉 딸 역시 성인이 되기 전까지(12년 6개월) 아버지의 소유였던 것이다.

2. 둘째로 제자란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이해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즐겨합니다.

